

청소년의 평등한 삶을 위한 과제

- 가정과 학교간의 유착현상을 통해본 제도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 -¹⁾

조 혜 정*

- I. 머리말
- II. 학력경쟁과 가정적 지원
- III. 입시경쟁교육에서 얻는 것
- IV. 대안을 찾아서

I. 머리말

농경적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현저한 변화중의 하나는 대중교육과 관련된 변화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으며 교육을 마친 후 자신의 출신배경과 무관하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평등사회로

의 이행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대중교육을 통하여 만인은 일차적으로는 새롭게 추진되는 산업화의 역군이 될 훈련을 받는다. 국민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참을성 있는 일꾼이 되도록 길러졌던 것이다. 이차적으로 국민은 새로 탄생한 근대국민 국가의 훌륭한 시민으로 길러지는데 이때 그 주 목표는 혈연중심적이고 특수주의적 사고를 해운 인간을 보다 국가주의적이고 보편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서서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변화중 하나이다.²⁾

우리나라가 이러한 근대교육을 실시한 지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이 논문을 쓰기 위해 수시로 주변의 학부보들이나 과외교사인 대학생들에게 정보를 구했다.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논문 초교를 꼼꼼히 읽고 도움말을 준 노스 웨스턴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박정선씨에게도 감사한다.
- 2) 국민국가시대 들어서면서 대중교육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안토니 기든스(1991), 『포스트 모더니티』(민영사)나 어네스트 겔러(1988), 『민족과 민족주의』(예하)를 참고할 것.

근 일세기가 지났다.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내고 근대국가를 형성해가는데 적합한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제도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거의 완전한 대중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 교육의 과제를 1) 합리화와 효율화, 2) 평등화, 3) 민주화, 4) 다양화의 네 단계로 나누어 볼 때 산업자본주의화에 골몰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그 첫 과제에만 치중해 왔음을 알게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근대화는 빈곤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라든가 '인간적 삶'등에 관한 논의는 간과해 왔으며, 교육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에 종속된 채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임기응변적으로 막아가는 역할을 하는 데 급급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정치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어가고 세계시장이 광범위하게 재형성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무규범적 혼란 상태가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동안 쌓인 제도 교육의 모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교육개혁의 과제는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쌓여있는 많은 교육개혁과제 중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사회를 진단해 보려 한다.

학력경쟁을 통한 공평한 경쟁과 계급이동의 문제는 산업화가 어느 수준에 달하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는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고교평준화'라든가 '과외금지' 또는 '계층간의 위화감' 등의 표현은 우리 사회 여론이 얼마나 교육을 통한 평등을 중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때 제기되는 문제의 차원은 봉건적

신분상의 불평등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적 계급의 재생산과 관련되어 논의될 성질의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의 아동들에게 학교는 공평한 경쟁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다. 근대이후 주창된 기회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점검할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인데 후기산업 사회에 들어선 서구 사회에서는 계급재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불평등사회로 고착되는 현상들이 더욱 현저해지고 있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배타적인 상층계급화가 일어남을 볼 때 평등의 실현은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불평등의 기제와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 글에서는 적어도 우리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번째 부분에서는 제도교육 현장의 문제, 구체적으로 대학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는 학력경쟁 차원에서의 공평함을 다룬다. 우리 사회가 고학력 사회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계층이동을 목표로 한 극심한 학력경쟁에 온 국민이 휘말려있다는 표현을 써도 좋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학력중심의 경쟁사회이다.³⁾ 그런 만큼 학력관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나는 제도교육의 현상이 가정경제사정과 무관하게 능력이 우수한 아동이라면 학교수

3) 학력사회와 관련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조혜정(1989), "교육의 신화를 깨자,"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정하출판사)를 참고 할 것.

업을 통해 유감없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적 지원에 따른 학교간의 학력수준의 차이, 그리고 학교내 개인간의 차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토론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단순히 사다리를 올라가는 주어진 기회상의 평등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현재와 같은 교육체제 아래서는 단순한 기회균등의 문제에 국한하여 평등을 논의할 때 문제의 핵심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이 지나쳐서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상황에서 기회균등을 위한 경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알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넓은 안목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해 나갈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 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기회균등을 표방하는 대학입시교육은 전인교육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단적으로 현행 교육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실현의 욕구를 억압하고 그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일 수 있다. 따라서 제도교육이 의미하는 것이 다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입시스트레스, 입시중독증과 금단현상, 무취미, 자동반사적 학습등과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 평등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동시에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장기간에 걸친 소외된 학습에서 초래된 창의력과 사회성의 파괴, 더 나아가 문화 전체를 황폐하게 하는 집단적 편집증등의 현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서양의 이론에 너무나 의존한 나머지 우리 현상을 보는 일을 등한시해 온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글에서는 '식민지 지식인적'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서양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세련화된 이론의 권위를 빌리거나 현상과는 거리가 먼 양화된 자료에 기댈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여기서 우리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상식적 사실을 정리하고자 할 뿐이다. 우리는 사회과학자이건 아니건 모두 늘 현실을 관찰하며 살고 있고 그 현실의 이면을 읽어내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우리가 간파한 사실들이 부분적이고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학문적 토론이란 바로 그 부분성, 편파성을 어떻게 헤쳐라도 보완, 극복해 가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학문적 논의의 궁극적 목표를 객관적 진리 추구자체에 두고 있는 과학주의자도 아니며 전문가의 위대성을 믿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식민지적 상황에서 빌려온 전문적 지식은 문제 해결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는, 현실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문학자이며,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운명에 동참하여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또 실천해 가고자 하는 시민이며 부모이며 교사이다. 이 글의 토대가 되는 자료들은 나 자신의 삶의 장에서 쉽게 얻어지는 일상적 대화와 관찰을 통한 것이다. 그동안 인류학자로서 길러온 감수성(이 정도의 전문화를 나는 믿을 뿐이다)을 십분 활용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평등의 실상을 제도교육과 가정간의 유착관계를 통해 그려내고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학력경쟁과 가정적 지원

1. 학교교육과 계급재생산 및 학군

학교교육은 원칙적으로 계급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출신배경을 가지든 상관없이 학교에서 잘 '배워' 학식과 능력을 갖추면 모두가 학자도, 법관도, 고위 정부관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들의 가정적 배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가정적 배경이 학교교육을 매개로 한 계층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구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자.

대부분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경우는 주거지의 분리에 의해 계급재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서, 집값이 비싼 동네에 좋은 학교가 있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과 대학진학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학군을 통한 계급재생산은 자본주의가 정착한 선진국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군 조정 외에 계급문화형성을 통한 계급재생산과정이 문제시되기도 하는데 영국이 그 사례중 하나이다. 영국과 같이 계급화가 고착되어 「노동자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자의 자녀들은 상층이동을 추구하기보다 노동자가 되는 문화를 일찍부터 내면화해 간다. 폴 윌리스의 현장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노동자 출신 학생이 가는 학교에서는 공부나

정신적인 활동을 남자(사나이)가 할 일이 아닌, “나약한 것”, “펜대나 끌리는 일”, “찌찌한 것” 등으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거부하는 뚜렷한 집단이 형성되어있다.⁴⁾ 이 집단은 학교공부와 지적활동을 통한 상향적 사회이동의 약속과 희망을 조소하며 육체노동의 ‘남성다움’과 강인함을 찬양하는 저항문화속에서 학교생활을 한 후 졸업후에 자연스럽게 노동직에 진입한다. 이렇게 볼 때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재생산은 상당부분 가정문화의 지원아래 -특히 ‘사나이다움’을 강조하는 아버지와 아들사이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상당한 과도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계급문화」라고 불리울 하위문화가 없다. 산업화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어온 만큼 그런 것이 형성될 시간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속에 있었으며 모두가 빈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던 만큼 상류층문화라든가 노동계급문화라는 것을 형성하고 지탱할 중심집단의 형성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워낙 획일성과 동질성을 강조해온 문화이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급재생산형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다고 본다. 구태여 과거급제를 통해 온 가족과 문중이 팔자를 고치는 금의환향의 전통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빈곤과 혼란의 근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 성원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식교육을 잘 시켜 그 덕을 보려는데 있었음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아직까지 생생하게 체험하

4) 폴 윌리스(1989),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민백신서 7) 221쪽, 그리고 김기석(1986), “제도교육과 예기치 않은 결과: 저항이론의 주요 쟁점과 문제.” 『교육이론 1(1)』(서울대학교)을 참고할 것.

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가 공평한 경쟁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신념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 성원들은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는 명제를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최근까지 학교는 상당히 공평한 경쟁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빈농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대거 입학할 했으며 아직도 그것은 크게 가능하다. 최근에 대학부정입학이라든지 기부금입학제가 그렇게 엄청난 감정적 반발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교육이란 것이 우리 사회의 공평성의 상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명문대 입학을 통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그런 제도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학입학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분명 상당히 공평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 지금은 그 판도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듯하다.

교교 평준화이래 명문고의 전통은 사라졌지만 최근에 거주지에 따른 학교 차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거주지에 따른 차별은 서울의 8학군등의 문제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사회발전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계층이동에 관심이 있는 가정은 좋은 학군을 따라 이사를 다닐 것이고 「아이 교육을 위해 세번 이사간 맹모」의 설화는 여전히 살아있는 설화로 이 경향을 부채질 할 것이다. 현재 이 「이사를 통한 학군선택」의 문제는 두가지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는 가난하더라도 집념이 강하면 이사를 통해 계급이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유동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지역에 이사할 재력이 되지 못하므로 계급이동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부동적 측면이다. 우리 사회의 주거조건을 볼 때, 아직은 한 동네에 작은 규모의 집과 큰 집이 함께 섞여 있으며 전세와 월세등으로 그다지 큰 돈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학군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큰 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얼마동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에 힘입어 학군 자체가 독립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학군 외적 요소들이 대두되면서 계급재생산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분명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과외공부, 촌지, 공부하는 분위기의 마련등 가정적 지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 과외, 촌지와 영양관리등 가정적 지원을 통해 본 불평등의 심화

입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기회균등적 학교교육에 학교공부외적 요소가 개입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학군의 조절외에 과외공부, 교사에게 부모가 가져다 주는 촌지, 입시생을 위한 영양, 가정이 제공할 수 있는 공부하는 분위기, 감정 관리등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재력과 어머니들의 뒷바라지로, 현재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습보조를 위해 부업을 선택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현상을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이제 대학입학은 대부분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하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이를 길러간다. 91년 현재 강북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의 경우를 보자. 그는 74년 생으로 아버

지는 큰 병원의 기술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부업으로 보험외판사원을 하고 있다. 동생이 있으며 자신의 성적은 중상위권에 속한다. 그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피아노와 미술학원을 다녔고, 4학년때부터는 웅변과 주산학원을 다녔다. 5학년때는 스케이트를, 6학년때는 서예학원에 다녔다. 주산학원은 산수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서예, 미술과 피아노도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영어와 수학 과외지도를 죽 받아왔다. 두살 아래인 동생도 자신과 같은 코스로 과외를 받아 왔고 동네 아이들이 비슷한 식으로 과외들을 한다. 과외는 학교에서 배우기 조금 전에 미리 배우는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체화를 5학년 때 배우게 되면 미리 학원에서 4학년 때 배운다. 국민학교 학원비는 그리 큰 부담은 아니나 중학교 입학전 겨울방학때부터 어머니가 보험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학원비의 3,4배를 하는 과외비를 충당하려 하신 것 같다고 한다. 자기들을 과외 보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고모도 시집가서 사촌을 기를때 자기들이 한 것과 비슷하게 과외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학생은 어머니가 피곤해 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해지고 자신의 부족한 성적으로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 학생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과외를 포함한 교육비로 쓰고있다.⁵⁾ 교육비가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어머니들의 부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은행대출을 하는 식으로 비싼 과외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한다. 중하층의 경우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과외비를 위해 파출부일을 나가고 중상층의 경우는 보험사원, 가게 운영등의 일을 주로 한다. 교육비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곤란은 중상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과외비는 공개적 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과외교사로 이름이 난 교사는 곧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쪽으로 스키움되는 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과정에서 과외비는 턱없이 오르게 된다. 자녀의 점수올리기에 혈안이 된 어머니들은 이 와중에서 덩달아 과외비를 올리고 결국 중하층에서 중상층까지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상당한 출혈을 하며 아이들의 과외비를 마련해 가는 것이다.⁶⁾ 과외비에

5)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한국의 교육비 수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한해동안 정부와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 지출한 총교육비는 20조여원으로 국민총생산량의 15%, 정부 총예산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부지출금은 5조원인데 반해 보충수업비, 부교제비, 학용품비, 학원비, 과외비등을 포함하는 사교육비는 9조2천억여원으로 공교육비보다 많아 우리나라 현행교육이 얼마나 개인 가정의 가계지출, 즉 학부모의 출혈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국민일보 1991년 4월 1일자).

6) 1991년 현재 강남지역에서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가르칠 경우 일주일에 두번을 가르치고 과목당 30-40만원을 받는다. 원직교사나 전문교사에 의한 과외비는 80-120만원을 웃돈다. 따라서 소수의 상류층 어머니들을 제외하고는 자녀 뒷바라지가 무척 힘들다. 자녀가 “일류대학의 합격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는 말을 듣거나 “지난 해 입시가 어떻게 출제되어 과외가 필요하다”거나 마무리 “정리과외는 해야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면 어머니들은 빗을 내서라도 과외를 시키게 된다고 한다. 더구나 교사과외는 금지되어있으므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돈만 더 없어진다면 전문적인 과외교사들은 이동해 다니므로 그 가격은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다. 교학력 중상층 어머니들 중에는 자신을 비서실장이라고 부르며 과외교사에 대한 최근정보들을 입수하고 자녀의 점수를 관리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만족감을 맛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더하여 학교교사에게 비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공공연한 관행인 ‘촌지’도 많은 부모들에게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촌지 역시 어머니들은 계층에 관계 없이 자신들의 여유분을 짜내건 더 노동을 하건 마련해야 하는 교육비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피해의식은 자녀교육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⁷⁾

1988년 과외금지부분이 완화되고 올 여름 과외가 전면 허용되면서 과외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단지 부모의 교육열에만 힘입어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돈이 있는 곳에 사업가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이제 과외산업이 번창해지면서 적어도 얼마간은 더 많은 돈이 사교육비 지출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학원의 광고를 보면 상당히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과외하지 않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과외과열현상을 부르고 있다. 광고문을 예들 들어 보자.

—홍익학원 광고문—

1. 학부모님? 요즘 대학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피부에 와 닿고 계십니까?… 대학 입시 경쟁률이 4.5:1로 치열합니다. 요컨대
 - 1) 반에서 최소한 15등 이내라야 간신히 대학을 갑니다.
 - 2) 반에서 8등 이내라야 서울소재 대학을 바라봅니다.
 - 3) 반에서 3-4등 이내에 들어야 명문대에 갈 수 있

습니다.

2. 따라서 남보다 먼저 앞서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심하게는 다음과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 1) 국민학교 6학년 - 중 1공부,
 - 2) 중 1학년 - 중 2공부,
 - ...
 - 7) 고등학교 3학년 - 재수생과의 경쟁공부
3. 결론은 다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1) 적어도 국민학교 4학년부터 뒤지면 곤란합니다.
 - 2) 중 1,2때 기초가 확고하게 다져져야 대학에 갑니다.
 - 3) 고 1때 성적이 대학을 결정합니다.

—큰샘학원 광고문—

우수아도 자칫하면 부진아가 됩니다.

지금 학교성적이 상위권에 든다 해도 대학진학은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관성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학습진로를 앞질러 학교수업이 복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공부에 재미가 붙고 자신감이 넘쳐 성공관성이 생기며 작은 성공의 경험이 반복되어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우수아로 정착됩니다.

이 두 광고문항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에 신경을 쓰며 과열과외에 휘말리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교육제도와 부모의 교육열에 더하여 상업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⁸⁾ 학부

7) 조혜정 (1991), “국민학교 현장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문제점” 『교육난국의 해부』 (나남출판사) 198-200쪽. 여기서 중하층 어머니들의 피해의식에 대해 좀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과외가 성행하면서 어머니들 사이에 “자기 아이만 손해본다는 느낌”은 더욱 강해져서 중산층 어머니들도 한결같이 이 문제를 시정해 주기 바라고 있다. 교사과외를 양성화하여 과외비를 낮추든지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것이 중산층 주부들의 당부이다. 이런 것은 신문에 종종 기사화되고 있다(조선일보 1991년 9월 9일자 참조)

8) 상업주의적 현상에는 사실상 학원뿐 아니라 현행 입시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과외나 과열된 입시경쟁, 대입 예상문제

모와 학생들은 대학 입시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되는 불안이다.

2) 대학입시에 성공하는 아이는 상당한 추진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외에 과외교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교수업만 충실히 하여 대학입시에 성공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외로 수업을 미리 앞당겨하기 때문에 학교는 부차적인 학습의 장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이미 그 교과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학교수업은 복습에 불과하며 과외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수업으로 과정을 제대로 따라 갈 수 없다. 다수가 과외를 하게 되면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런 악순환으로 학교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 현상은 현직교사들이 과외를 할 경우 강화되기 마련인데 자신들이 과외로 피곤하기 때문에 정상수업에 소홀해지는 경향과 학생들에게 과외를 종용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과외가 성한 곳일 수록 - 강남이나 지방의 특별한 학교들 - 학교수업에 불충실하며 학부모들은 개인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가야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때 학교교육을 통한 공평한 경쟁과 기회균등의 과제는 하나의 신화로 남게 될 날이 멀지 않다. 아직은 과외금지 내지 T.V.과

외세대가 대학에 들어가고 있지만 교육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명문대 입학의 판도는 조만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성공관성이 붙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학교때부터 백점을 받은 습관을 들여 놓은 다음 그런 기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줄 아는 전문적 과외교사를 고용하여 학력관리를 하게 하는 무척 비싼 방법이 점점 더 대중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이 경쟁은 결국 학력경쟁이라기 보다는 재력경쟁이다. 더 나아가 시간관리, 영양보충과 감정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머니를 향간의 표현대로 '비서실장'으로 두는 것이 유리한 만큼 이 경쟁은 소위 고등교육을 받아 출세욕이 강하고 정보망이 넓은 어머니를 둔 아동에게 선취권이 주어지는 게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이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되기에는 가정의 경제력과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너무나 깊숙히 학교에 침투해 있으며 이런 가정과 학교의 결합 내지 유착현상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 나아가 사회전반에 걸친 위기현상을 낳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⁹⁾ 사실상 대다수의 주부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현행의 교육과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행 교육체제아래서 이익을 얻는 집단은 누구인가? 그들은 진정 이익을 얻고 있는가?

지와 답안등을 급속히 배포하고 과열보도 하는 대중매체의 대중야합적 역할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9) 어머니들의 극성을 단순히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중산층 주부들이 자녀를 통해 개인적 성취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III. 입시경쟁교육에서 얻는 것

1. 현행교육제도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

앞장에서 교육현장은 더 이상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현행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는 공평한 게임이 되는 편이며,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순기능적인 측면이란 주로 사춘기때의 탈선을 줄인다는 점을 의미한다. 학교가 「수용소」적인 감시기능을 철저히 함으로써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비행, 다시 말해서 마약에 중독된다거나 이성문제로 뇌를 잃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창 나이에 뭔가 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공부에 몰두하여 지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한창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을 할 시절에 목표를 분명히 제시함으로 불필요한 방황을 줄일 수가 있기도 하다. 확실히 일류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보면 놀라운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지구력은 소외된 상태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노예적인’ 지구력이다. 그들은 주어진 자극에 놀람도록 재빠른 반응을 할 줄 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자극제가 되거나 창조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자기 끼리 모여 논쟁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하지 커다란 지적 도전을 감행해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안전제일주의적 성향을 아울러 내보이는 것이다. 이들이 중고교 시절에 길러온 이러한 지구력과 수동적 반응력은 자신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적응해야 되는 사회생활에 매우 필요한 특성들일지 모른다.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기보다 ‘관리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참을성 있게 수행하는 능력을 이들은 입시준비기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길러간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이런 타율적 인간을 길러가는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갑자기 주어진 자유의지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하여 고 3시절이 행복했다고 솔직하게 토로할 때, 자유가 부담스러운 비주체적 어른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도대체 한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방황기간을 생략한 인간이 어떻게 성숙한 눈으로 인생을 볼 수 있을까? 물론 사회에는 언제나 순응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 역시 필요하다.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할 사람들이 거의가 순응적이고 비주체적으로 조련되었을 때 그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교육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공정한 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력경쟁의 공정성 논의

10)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최근에 나오는 많은 비행청소년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이길홍(1990),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한국청소년연구』2 등을 참고할 것.

에 치우치다보면 자칫 문제의 핵심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나친 학력경쟁에 따른 문제는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계의 연구에서도 가끔 논의가 되고 있다. 정영운의 논문을 보면 “경쟁사회에서 조기의 경쟁을 체험케 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계속되는 경쟁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의 경쟁은 살인적이다.”는 표현이 나온다.¹¹⁾ 그는 이어서 내신성적을 잘 얻기 위해 옆에 앉은 친구와도 적이 되고 경쟁에서 뒤지면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가거나 저항아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입시경쟁에서 낙오된 학생의 수가 그렇지 않은 수 보다 훨씬 많으며 입시에 성공한 경우도 신경증이나 열등감등의 문제에 시달린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자인 이길홍의 연구에서도 이 점에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¹²⁾ 그는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모들의 과잉교육열이나 일류집착증으로 인해 정서교육을 포함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위주의 교육풍토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한다. 임상을 통해 그는 동급생간의 심한 경쟁의식, 속칭 중3병이나 고3병, 대입병, 재수병등으로 불리워지는 입시스트레스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수험생들이 날로 증가함을 보고하면서 그 원인을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모들의 과잉교육열이나 일류집착증으로 인해 정서교육이 포함된 전인교육보다 지식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찾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부담을 적절히 해소시

키지 못하여 학습장애나 부적응 증세를 보이며 등교를 거부하거나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전체 자살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면적 입시제도의 개선과 고학력우대 풍토의 쇄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¹³⁾

2. 학생들이 인지하는 문제상황과 결과들

경쟁교육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각계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도切에하게 느끼고 있다. 청소년들이 문제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중학교 1학년이 쓴 두 편의 작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 부정적 결과들을 생각해 보자. 아래의 글은 중학교 1학년들에게 「공부」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여 써 온 것 중 문제를 잘 드러낸 것을 뽑은 것이다.

~작문 1. 공부,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은 공부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전 물론 공부가 나쁘다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삶도 있을테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부는 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하면 사람취급을 못 받으므로 합니다. 몇년 전부터 점점 공부가 제 인생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에서는 인생에서 도움줄 전 안 가르치고 시험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이 성적 맨 앞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모의고사에는 들어있지도 않으며 일주일에 두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도덕」이지 말만하고 선생님과 같이 쓰레기를 즐기고 도덕적인 것을 실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공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은 시험을 위해

11) 정영운(1990), “심리학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한국청소년연구』1 46쪽.

12) 이길홍(1990),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한국청소년연구』2. 34쪽

13) 이길홍, 같은 책, 37쪽.

서 합니다. 국민학교 때는 못 느꼈지만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선생님들이 부쩍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공부 많이 해라” 또는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니 뛰어가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를 딸딸 외우는 아이가 일등하는 건 또 뭐니까? 생각하는 문제, 이해하는 교과서가 되어야지요.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는 학생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괴로와 하다가 컨닝을 하게도 되고 그래서 또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요. 시험성적을 최고로 생각하는 부모들은 반성해야겠지요. 부모들이 과외를 만들어 더욱 경쟁심을 북돋우고 자랑하고 걱정하고 비교하여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자랑하려고 공부시킵니까? 우리는 딸딸딸 외우느라 머리만 나빠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그러다 이팔청춘이 다 가고 맙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부 어른들이 정신을 못 차려도 우리만은 공부 못하는 아이 깔보지 말고 다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참도덕을 지킵시다.”라고 말입니다.

-작문 2. 지겨운 공부.

공부는 그저 머리만 아픈 것이다. 국어를 봐도 문법이니 품사니 해서 골만 핏퐁하게 한다. 한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또 수학하면 공식이니 해서 복잡하고 까다롭다. 영어는 대충만 알면 여행정도 할텐데 문법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다.

집에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가 “공부해라”는 말을 한다. 들어도 칭찬인지 꾸중인지 구별 못하는 식의 말을 계속하면서 말이다. 또 그렇게 시키면 스트레스를 풀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외는 없다. 떠들면 선생님이 통지표에 올려버리고 또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재수없는 통지표가 나온다. 통지표를 받으면 일등한 아이 빼고는 우리 모두가 후회를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통지표를 고치는 아이도 생긴다. 가솔도 하고 자살하는 아이도 생긴다. 언뜻 듣기에 웃기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우리로선 전학생이 그냥 대충 공부하고 살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허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도 비싼 과외비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고 뇌가 터진다는니 하는 일로 정신병원에 가

지 않아도 되니까 국가에서도 병원을 덜 지어도 될 것이다. 하여간 우선 당장에는 공부하는 우리가 지겹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부모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첫째번 글은 강북의 한 보통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쓴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교장이 학부모회의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가르칠테니까 가능한 한 과외를 시키지 말라 달라고 당부하는 정도로 교과서에 충실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교중 하나이다. 이 학생은 과외를 하지 않는 학생으로 성적은 중상위권이다. 두번째 글은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입시성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진 중학교 학생이 쓴 것이다. 이 학교는 교장이 학부모모임에서 부모들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실제로 학생들이 과외를 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을 하는 편이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스케줄이 따로 있다는 전제에서 방학숙제도 내 주지 않는다. 중학교 일학년생들 중에 일, 이등하는 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 있으며 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입시문제에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을 쓰는 학교중 하나이다. 이 글을 쓴 학생은 그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서너 과목의 과외수업을 받고 있으며 밤 12시 전에 자는 날이 별로 없는 성적이 상위권이 드는 학생이다. 이 두 학생의 글에서 우리는 두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런 교육으로 인해 손상되는 청소년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과 사회전반에 걸친 빈곤과 불신의 문제이다.

1) 사고의 경직성과 패배의식

이 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교 일학년 이전부터 청소년들은 대학입시의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시험 백점받는 것 자체에 재미를 들인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학생들은 공부를 소외된 노동을 하는 중노동자와 같은 기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활을 6년간 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사고 스타일과 인성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 우선 사고방식의 측면을 생각해 보면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의 문제를 푸는 데는 천재적인, 기계적인 사고에 젖어버린 인간이 양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신 유추나 비유를 통해 독창적인 생각을 해 낸 다거나 당장 답이 나오기 힘든 문제를 끈질기게 탐구해가는 학생들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성격적인 면에서는 사회성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과외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의존심은 높아져 스스로 무엇을 하려들지 않게 될 것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과외교사들이 지적하듯이 과외공부를 어릴때부터 한 학생들은 스스로 백과사전들을 찾아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남(과외교사)에게 의존하여 물어보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런 면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은 청소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입시중독증, 공부를 “끊으면 불안해 지는” 금단현상, 무취미, 자동반사적 인간 등 학생들 자신들이

스스로를 그리는 단어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에 들어와 적어도 일어난 낙제를 하든 말든 “풀어야”만 한다고 절박하게 느끼는 많은 학생들, 「서머힐」등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서양의 대안적 학교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때려 부수고 싶어요.”라고 반응하는 학생들을 보면 현재의 교육제도가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¹⁴⁾ 사실상 치열한 입시에 성공한 학생의 일반적 독서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멈춘 상태이고 창의적 사고는 이미 거의 숨죽은 상태이다. 첨단과학자를 기르는 대학원이나 연구소, 또는 국제적인 경쟁을 해 내야 하는 기업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해 낼 수 있는 인력부재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근본문제는 바로 이 경쟁적 입시교육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한 해결될 수 없다. 최근에 해외교포나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유입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일을 해 내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 데 있다 하겠다.

이 점과 관련하여 나는 예비고사 200점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300점을 맞고 일류대에 들어간 학생들보다 어느 면에서는 보다 개성이 강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낙관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탐색을 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동료 교수들을 통해, 그리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낸 사실은 내 예상과는 달랐다. ‘200점짜리’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교

14) 명문대에 입학한 후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교육학이나 심리학 계통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길홍, 앞의 책, 35쪽에서 입시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논의가 나오나 의학적 입장에서 단기적 평가를 내릴 뿐 그것이 시사하는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병폐까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사와 부모들로부터 공부를 못한다고 워낙 구박을 받아서 자신들을 ‘못난이’로 생각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소년기를 독서와 여행을 하면서 소신껏 200점을 받은 학생도 학교와 사회의 압력이 워낙 강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개성있게 버티다가도 결국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더라는 것이 그런 학생들을 지켜 본 동료 학생들의 의견이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학력경쟁은 어느 누구도 살려내지 못하는, 결국 모두가 지는 경쟁임을 알게 된다. 경쟁에 이긴 사람은 대다수가 체력적으로 허약하며 경험의 폭이 극히 편협하여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두뇌가 손상된’ 상태에 있으며 경쟁에 진 사람은 ‘폐자’라는 낙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⁵⁾ 한마디로 현재의 학교는 경직된 사고방식,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찢은 다수를 배출해 내고 있으며 부모들은 이런 제도를 음으로 양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교육이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원을 기르는 기구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교육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체제유지적으로만 나아가면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문화적 자원을 전혀 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빈곤과 불신을 초래하는 교육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사고와 육체를 빈곤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의 삶까지도 빈곤하게 만든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부모탓이며 성적인 가족의 뒷바라지에 비례한다는 생각, 특히 교육비 투자에 비례한다는 생각은 소수의 재력을 갖춘 가정을 제외한 각 계층의 어머니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학원비, 과외비로 인하여, 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약먹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루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대다수가 사교육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주부가 ‘휘청거리는 살림살이’가 염려스러워 책 한권 마음대로 사보지 못하는 정도로 빈곤감에 시달린다면 입시경쟁은 당사자인 청소년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삶까지도 여지없이 곤궁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이 입시생의 부모는 쪼달리기 때문에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생활인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질을 생각하며 계획하고 살아갈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한

15) 최근에 이런 살인적인 경쟁교육에 질려서 자녀들을 종교교 시절에 외국에 내보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정보도 부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보내고는 자녀가 탈선하거나 유학기관에 의해 사기를 당하여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신문기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언론은 이것을 마치 커다란 비행인 것 처럼 보도하는데 이 문제 역시 보다 큰 안목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도파성유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우리의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조기 유학을 국제화 시대를 내다보는 적극적 안목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교육적으로 획일적인 경쟁외에 아무런 대안을 주지 못한다면 소수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일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조기 유학을 양성화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유학의 성과가 개인에게나 사회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국민간의 위화감’ 운운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교육개혁을 해내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나 그런 현상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공론은 좀 더 거시적 수준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는 데 있다. 전쟁터에 사는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듯이 입시생이 있는 30-40대 부부의 집안은 오로지 입시생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대화나 감정적 교류는 유보되기 마련이며 결국 새로운 가족문화를 이루어 간다든가 시민활동을 할 공간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의 또 다른 측면은 부모 자식간의 '불신'으로 나타난다. 위의 중학생 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자녀는 부모를 싫어하게 되고 또 학교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된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은 입시에 대한 부모와 교사들의 불합리한 태도에서 싹트는 것이며, 현재 학생운동을 열렬하게 하는 다수의 학생들의 심리 저변에는 오랜 중고교 시절에 가슴 깊이 담아둔 모순적 교육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의 공부를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원망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가정의 재정적 지원이 개인의 학력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경제적 궁핍은 우리 사회가 매우 중시해온 가족관계조차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내 불신 못지 않게 가족외적 불신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과외에 대한 맹신이 팽배해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불신사회의 깊은 뿌리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이 유착관계에서 이루어내는 입시전쟁은 분명 사회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체를 허약하게 하며 곧 사회 전체의 문화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사회적 변화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는 이유중 하

나가 여기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입시경쟁의 도구로 남은 현행 제도 교육의 병폐를 교육자와 청소년 자신들까지도 이렇게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여기서 우리나라 자본주의적 발전의 양상이라든가 국가의 억압성에 대한 분석을 할 의도가 없다. 이 문제는 제도권내와 권밖에서 무수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터이다. 그보다 현행제도를 바꾸어나가기 위해 움직여야 할 주체들이 상황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을 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했을 뿐이다. 정리를 통해 이제 다시 현행 교육제도를 통해 누가 무엇을 얻으며 또 누가 무엇을 잃는지 물어야 할 때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는 게임을 지속시키는 '관성'이 붙어버린 현 상태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학교가 공평한 교육의 장이 되어 개인의 능력을 한껏 계발하는 기능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현재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이 인간적으로 손상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염려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IV. 대안을 찾아서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모두가 경쟁상대이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풍토 속에서 다수가 피해의식과 편집광적 증세를 보이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는가? 가정과 학교가 부정적인 양태로 유착되어있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까? 교육개혁의 과제인 합리성, 평등원리, 민주화와 다양화를 추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혹자는 조금만 더 썩어들어가면 일이 터진다고 한다. 조금만 더 썩게 놓아두면 끓은 것이 터지면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급이동의 여지가 줄어들면서 계급간의 대립과 불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규모의 자본주의 체제가 강화되며 국가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와 고도기술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20세기 초반에 당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21세기에 들어서서 강대국의 경제속국이 될 뿐 아니라 이번에는 막강한 대중매체와 정보기제로 인하여 가차없이 문화적 속국이 되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은 눈 앞에 있는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경쟁할 때가 아닌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문화적, 군사적, 경제적 식민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주체성을 가진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문화적 자원이다. 문화적 자원이란 곧 주체적 사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지혜와 힘이다. 대안은 이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에 근본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어느 연구에서나 되풀이 되고 있는 결론이다. 싫던 좋던 우리는 '근대' 사회에 들어섰고 이제 더 이상 70년대 식의 통제적 개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70년대 처럼 '과외 절대 금지'등의 강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해마다 논의되면서도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입시제도의 개선과 양질의 T.V.과의 보급등으로 적어도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대학 진학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에서 대학입시 선택과목의 선택 경향이 위기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사회」(세계사 대신)와 「생물」(물리 대신)에 크게 몰리는 것을 우려하면서 성적을 원점수로 표시하는 대신 표준화점수로 계산하여 점수의 등락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었다.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거의 생사를 걸고 있는 입시의 평가가 아직도 이렇게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우며 동시에 자기 자식들이 일점이라도 손해볼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는 그 많은 학부모들이, 또 교육일선에 나선 전문가들이 점수제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심하거나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놀랍다. 이는 대학입시문제를 놓고도 일 수 있는 논의이다. 엄격히 따져보면 정답이 둘 이상인 문제가 허다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입시제도의 바탕은 사실상 그만큼 허술한 것이나 어느 집단도 그 허술한 토대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단적으로 학부모들의 극성은 극단적 타율성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부모가 국민으로서 교육당국에 대해 전혀 압력을 가하지 않고 무조건 적응만 해 온 데서 현재와 같은 문제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¹⁶⁾

16) 그나마 학부모들의 모임인 육성회와 어머니회는 약간의 돈을 모아 학교의 부실한 시설을 보충하는데 기부하고 스승의 날

가정과 학교에 관한 논의가 이 글의 초점이 된 만큼 학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을 찾아본다면 우선 학부모들은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공평한 학력게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자의 현장에서 개선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평등의 개념을 한정된 권력이나 부를 나누어 갖는 편협한 수준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인간성 실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한가지 유형의 아이만을 기르고 있는 현재의 교육풍토를 개선하여 다양한 재주를 가진 아이들의 잠재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또 대안학교들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도 부모들이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을 안가도 잘 살 수 있고 또 나중에라도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식으로 교육과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학부모권과 주민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집단적 압력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생을 망친다는 식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학습권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¹⁷⁾

부모의 일차적 의무는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자라는 것을 돕는데 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영역, 특히 제도교육영역에 매몰된 일상생활세계를 살려내고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며 자녀 역시 스스로를 존경하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가족간의 유대와 이해관계가 이뤄지고 그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근시안적인 가족이기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교육제도 아래서는 적극적으로 학부모권행사를 한다는 것은 반교육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에 대해, 행복에 대해 보다 근원적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된 상황에서 아이들 역시 무조건적으로 적응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더 병들거나 반항하기 전에, 이 사회의 문화적 자원이 소진되어버리기 전에 가정의 어른인 부모는 미래를 향한 교육전망을 세우고 새롭게 학부모권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당사자들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선상에서 교육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나 운동회 때 교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자식을 잘 보아달라는 부탁을 은근히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 내가 기본 육성회에서는 모은 돈을 도서관구입비, 핸드볼팀의 해외원정비, 교사휴게실 보수비조로 사용하겠다는 보고 겸 결의가 있는 후 광역회의에 출마하였다는 육성회회장이 나와서 자신은 훌륭한 교양강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피부미용에 대한 강의볼 할 사람도 알고 있어서 앞으로 어머니들이 많은 유익한 모임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교육이 증발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경우였다.

- 17) 학부모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최근들어 미약하나마 일고 있다. 참교육실천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가 펴낸 문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문이 나온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내 자식만은’하는 생각으로 개념과 안타까움에 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육 현실 앞에서 학부모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습니다. 교사, 학생과 더불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육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학부모 모임이 이곳 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ABSTRACT>

Is the Game Fair?: Problems of Competitive School System in Korea.

Hae-Joang Cho

This paper discusses the serious problems of competitive school system in Korea. For most Koreans,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lies in entering the top level univers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parents have been in conspiracy with the school system.

From the age of 5, parents send their child to extra-curricular lessons such as playing piano, painting, calligraphy, calculation and English. These lessons are not selected randomly but systematically matched to improve classroom performances of each level. From the 4th grade, the child gets in the main track for the severe competition. The parents, mother in particular, devote most of their energy and money for the competition. From the middle school, many children take private lessons. The fee for private lessons varies; the expensive lesson costs one month's income of an ordinary salaryman.

Amongst the heated competition, not only the youngsters but their whole families suffer enormously. The preparation period is so long and the

competition is so severe that the extensive experiences of preparing the examination bring damages to many youngsters involved. The students who are trained to be experts in multiple choice tests tend to show extremely reactive, not active, personality. Their brain works mechanically, but hardly analogically or imaginatively.

Moreover, it is getting difficult to say that the examination game is the fair game. Various kinds of familial support begins to play a crucial part in the game. The aggressive middle-class mothers thrust themselves into the center of the game. The youngsters from the working class would have more difficulties than before in succeeding the college examination since the middle class youngsters receive full support from their families, financially, socially and emotionally. Korean sociologists have once maintained that the reproduction of the class a myth by saying that the school system in Korea has been the solid ground for fair competition and class mobilization. But they might have to reconsider it now.